

전남도, 기능성 화학소재 산업 첫 발

광양 세풍산단서 '융복합소재지원센터' 준공 2020년 완공... 석유화학산업 고부가가치 제조

전남지역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 첨단화학산업으로 이끌 '융복합 소재 지원센터'가 6일 광양 세풍산단에서 준공됐다.

융복합소재지원센터는 플라스틱용기같은 범용화학제품을 자동차나 컴퓨터용 부품같은 정밀소재·부품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핵심시설이다.

기능성 화학소재는 기초석유화학 제품을 공급받아 자동차, 선박, 전자, 섬유산업 등에 부가재(염료, 도료, 접착제, 전해액, 계면활성제, 농약 등)를 공급하는 고부가 소재다.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지난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으로 확정돼 설립이 본격화됐다. 국가공인 시험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사업을 주관, 총 602억 원을 들여 2020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융복합소재지원센터는 연면적 7천462㎡,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다. 화학소재를 연구·분석하고 합성반응 장비까지 갖춰 기능성 화학소재의 개발에서 수출 인증까지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소재 개발과 생산 과정에서 직면하는 기술적 난제 해결을 돕고 연구개발(R&D) 기술 지원 및 실증화를 위한 시험·평가, 인증 등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광양만권 일대에

기능성 화학소재 부품산업이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석유화학산업은 국내 에틸렌 생산의 46%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지역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해오고 있다. 세풍산단과 인접한 여수석유화학단지의 GS칼텍스,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여천NCC 등 주요 기업 5개사의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6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시험발사체 비행모델(FM)을 공개했다. 시험발사체는 누리호에 쓰이는 75t급 액체엔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총 3단으로 구성된 누리호의 2단부에 해당한다. /연합뉴스

영업이익은 10조 원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설비 현대화와 품목 다각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까지 6조 5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경쟁국인 미국과 중국에서도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하고 있어 글로벌 경쟁은 더욱 심화 될 전망이다.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는 이런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체계를 갖춰 리튬이온전지 전해액, 내열성 접착제, 친환경 잉크·농약, 바이오 의약 등 2, 3세대 정밀화학 제품 생산을 지원하는 시설 확보와 관련 기업의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융복합소재지원센터가 전남 정밀화학 산업 육성과 발전의 초석이 돼 지역 연구소, 대학, 기업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양을 비롯한 동부권에는 철강과 화학 등 주력산업이 집중돼 있다"며 "앞으로는 신소재를 비롯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경남과 부산 등과 광역경제권 협력이 필요해진 만큼 부산-목포 간 고속철도 건설,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광태 기자

국내 최대 자동차 축제 영암서 팡파르

8-9일 '2018 전남GT' 개최...6개 종목 310대 참가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자동차 문화축제가 영암에서 열린다.

전남도는 '2018 전남GT'가 8일부터 이틀간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개최된다고 6일 밝혔다.

전남GT는 자동차 레이싱, 모터사이클, 드리프트, 오프로드 등 다양한 모터스포츠 6개 대회가 한 자리에서 열린다. 전 세계적으로 전남만의 독특한 대회 방식이다.

대한자동차경주협회 공인 경기로 진행되며, 메인 클래스인 '전남 내구' 31대를 비롯, '슈퍼바이크' 20대, '오프로드' 60대, 전기차 대회인 '에코EV챌린지' 10대, '드리프트' 35대, '타켓트라이얼' 36대, 서포트레이스 48대 등 총 310대의 다

양하고 특색 있는 경주를 만끽할 수 있다. 아시아 유일 스톡카 대회로서 국내 최고 대인 클래스인 '캐탈락6000'부터 아마추어 경주의 최고봉인 '아반떼급 마스터즈'까지 국내 모터스포츠가 총망라된다.

행사 첫 날인 8일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선전이 치러진다. 30분 단위로 다양한 경주를 펼쳐지므로 여유롭게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둘째 날인 9일엔 개막행사와 각 클래스 결승이 펼쳐진다. 대회 출전 차량이 도열하는 그리드워크에선 참가차량과 레이싱 모델을 가까이 만날 수 있다.

합합그룹인 DJ DOC의 축하 공연으로 축제분위기를 돋우고 전문 선수가 운전하는 드리프트 차량에 동승하는 택시타임에선 아찔한 스피드도 체험할 수 있다.

모터스포츠 대중화를 위해 어린이, 청소년 동반 가족을 위한 다채로운 콘서트도 마련됐다. 모비스의 '주니어공학교실'에서는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체험과 '과학연구'를 통해 과학을 친근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윈어민과 함께 하는 서킷 투어'는 모터스포츠와 영어를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레고 자율주행차대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교육 테마로 떠오른 '코딩'을 배울 수 있고, 4DX 체험관에서는 첨단 과학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 현지 스키이트보드 국가대표팀이 청소년 대상 스키이트 강습을 진행하며, 묘기에 가까운 화려한 퍼포먼스도 선보인다.

김영수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자동차 경주에만 국한되지 않고 관람객의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콘텐트를 대폭 강화했다"며 "경주장이 지역민에게 사랑받고 다시 찾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GT는 무료 입장이며, 대부분의 이벤트는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광주 계림 00구역 도시정비사업 '위법' 논란

동구, 뒤늦게 무자격 업체 확인 경찰에 고발장 접수 이중 협약 체결 조합과 조합장 권한대행은 조치 없어

광주 동구청이 '광주 동구 계림 0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위법' 논란에 대한 분지 보도(8월 26일자)가 나가자 해당업체를 관할 서인 울산남부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분지에서는 K 업체가 '정비사업업 전문관리업자' 미등록 업체로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무자격 업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해당 구역은 이미 다른 유자격 업체인 (주)엘엔에스(현, (주)범우도시개발)와 용역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또 다시 K 업체와 협약이 이뤄져 '이중계약'의 의문점을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임기가 만료된 협 조합장 권한대행인 '주민총회' 등의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K 업체와 추가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조합장 권한대행으로서 정통성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알려진 바에 따르면, 동구청은 K 업체와 대표에 대해서만 '도정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을 뿐, 함께 협약 체결에 동참한 조합이나 조합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동구청 해당 부서 조치에 대한 적절성이 도마에 오르

고 있다.

다구나 이 사업과 관련 '계림동 다른 구역의 정비업체 모 임원'이 최근 2차 업무협약 업체인 K 업체 법인 임원으로 등록돼 있는 것이 확인 돼, 이 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개입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동구청 관계자는 "위법 사항들에 대해 상위기관에 질의해 회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계림동의 또 다른 재개발 사업 구역들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난무하면서, 향후 이 지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추진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게 될지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 구형

다스 자금 횡령·뇌물수수 혐의... 벌금 150억원 등도 구형

350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징역 외에도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111억4천131만여원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로 구속된 역대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비 약 68억원,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상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 등 11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선고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10월 8일 자정인 점을 고려해 그 직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www.jndomin.kr
전남도민일보 캠페인

내가 지키는 가스안전

행복되어 돌아온다